

# 임실군, 내실 있는 군정 설계 박차

# 수도요금 문자고지 서비스 시행

### 예산 편성 · '2025 임실 방문의 해' 천만관광 명품 관광도시 실현 방안 등 점검

임실군이 '2025 임실방문의 해'를 앞두고 내년도 내실 있는 군정 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4일부터 2주간에 걸쳐 심 민 군수를 주제로 한 2025년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갖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군 재정 부족에 따라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 기준으로 사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2025 임실 방문의 해 준비와 민선 8기 출범 당시 심 민 군수가 군민들에게 약속한 '천만관광 임실시대'의 실현을 위한 실행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임실군은 지난 14일부터 2주간에 걸쳐 심 민 군수를 주제로 한 2025년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갖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주활력복합센터가 2025년 하반기 본격 착공 예정이며, 공모 진행 중인 이도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 대응해 임실을 구도심의 획기적인 변모를 꾀한다.

특히 관촌·오수 공공임대아파트는 내년 상반기 착공하여 관촌 120세대, 오수 80세대를 공급해 주거복지 향상과 인구 유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임실 공공임대아파트도 전북개발공사와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군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관내 학교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을 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군 자체 아동수당 지원과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도 연 4

매에서 6배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문화예술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저변을 확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극 유치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 복지 향상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보고회에서 "2025년은 천만관광 임실시대의 원년이 될 아주 중요한 해로, 2025 임실 방문의 해 등 준비 사항을 꼼꼼히 살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임실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금껏 잘해 왔듯이,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도 면밀한 계획에 따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상하수도과 전화 신청

순창군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군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요금 문자고지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종이 고지서 방식에서 탈피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수도요금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문자로 전송되는 정보에는 기본 수도 요금은 물론, 당월 청구 금액, 미납금액, 요금 산정 세부 내용 등 핵심 정보들이 포함된다.

됐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내용과 전월 대비 사용량 변동 등 꼭 알아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군은 문자고지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우선 서비스 신청자에게는 월 200원의 기본 할인 혜택과 자동 납부까지 신청하는 경우, 현행 1%인 할인율을 5%까지 대폭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고지서 분실 위험이 없고 종이 고지서보다 빠르게 요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이 사용량 감소로 인한 환경보호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한 맞춤형 시스템으로 구축

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내용과 전월 대비 사용량 변동 등 꼭 알아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군은 문자고지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우선 서비스 신청자에게는 월 200원의 기본 할인 혜택과 자동 납부까지 신청하는 경우, 현행 1%인 할인율을 5%까지 대폭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청 상하수도과(063-650-1482)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이후 이사, 매매 등 문자고지 대상 번호가 변경되면 반드시 해지와 변경 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조세정의 실현 위해 체납액 징수 강화 나서

순창군이 성실납세자외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28일부터 연말까지 범인을 포함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재산과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면 조사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압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은 지난 7월부터 더 11개 읍·면과 협력해 진행한 제3분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당초 목표액 2억7,300만원을 크게 상회하는 3억7,3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면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 방안을 적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수행정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증권사와 서민금융진흥원에 각각 계좌정보와 휴먼예금 내역을 요청했으며,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압류금지 소액 계좌를 제외한 재산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압류와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소방서, 재난 현장 지휘·상황관리 훈련평가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현장지휘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현장 지휘·상황관리 훈련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다양한 실제 재난 현장에서 신속·정확한 지휘 및 상황관리 체계 구축으로 재난 현장 대응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훈련은 평가단에서 고층건물 화재, 숙박시설 등의 다수사상자 화재, 태풍, 홍수, 지진 등 재난 상황 메시지를 부여, 소방서장, 신속대응팀, 현장대응단, 각 센터장, 구조대정의 임무별 역할에 따른 현장 지휘 및 상황관리 처리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 내용은 △재난안전통신망 무전기로 훈련상황부여 △산책대장 현장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청사초롱, 야간 도심 밝혀

### 도심경관 개선·지역상권 회복 등 구도심에 활력 불어넣어

남원시가 축제 홍보를 위해 관광자원 주변과 관내 지역에 다양한 컬러로 설치해 점등한 청사초롱(청사에 홍사로 상·하단을 두른 초롱)이 구도심을 밝히며, 전통 문화 예술 도시 남원의 색다른 야간경관을 구축해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94회 순환제의 사전홍보 및 관광지 활성화 등을 위해 관광자원 주변(요천로~소리길, 남문로~춘향테마파크 등)을 중심으로 12km에 걸쳐 다양한 색의 청사초롱을 설치 점등해 왔다.

이와 함께 어두웠던 관내 구도심 및 관광지지의 밤을 밝힘으로써 시민들의 야간 활동을 촉진하고, 관광객에게는 남원의 아름다운 도심의 밤 풍경을 제공하게 되면서 더욱 되살아나는 전통 문화 예술 도시의 정취를 선사하고 있다.

승월교 중심 요천의 터널형 청사초롱의 경우, 요천이 내려다 보이는 전통과 도심을 잇는 청사초롱이 되어서 '사진 찍기 좋은 핫스팟'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특히 관광자원 주변과 경외사가 주변에 설치된 청사초롱은 매주 토요일마다 펼쳐지는 푸드스트리트 율포포차를 방문하는 먹거리 외지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특별한 야간경관을 제공해 어둡고, 칙칙했던 포차거리가 아닌, 명소로 거듭나 지역상권 회복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효과는 남원시의 청사초롱에 대한 효율적 운영으로 더 배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남원시는 약 12km에 걸쳐 조성된 청사초롱에 대해 구역별로 11개소의 제어 분전함과 타이머



를 설치, 계절별 일몰 시각에 맞춰 점등하고 통행량이 적은 야간에 청사초롱 관리해 왔다.

이렇게 축제 홍보를 위해 시작했던 '청사초롱'이 도심경관 개선은 물론, 지역상권 회복까지 견인하자 남원시는 앞으로도 형형색색의 청사초롱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다양한 디자인과 색으로의 변화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사초롱으로 남원의 밤이 더욱 특별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빛이 머무는 남원의 이색 야간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 지역 소식 통

**순창군, 군민사회교육 수강생 작품 전시회 개최**

순창군 군민사회교육 수강생들이 옥천미술관에 한 해 동안 갖고 닦은 작품을 전시한다.

군민사회교육은 군민들의 취미 생활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11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 중이다.

이번 작품 전시회는 10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되며, 기념식은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전시회에는 서예, 사군자, 생활양재, 도자기 공예, 캘리그래피, 풍목자수,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강생들이 만든 7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도 수강생분들의 작품전시회를 개최해 군민들과 작품을 공유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다양한 취미 교실이 준비돼 있으니, 다음 해에도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하반기 찾아가는 학교구강보건사업 운영

임실군 보건소의료원인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덕치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관내 초등학교 14개교를 순회 방문하여 '찾아가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시기는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나오는 중요한 시기다. 이 사업은 올바른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여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된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치과 전문인력이 이동진료차량으로 각 학교를 방문하여 구강검진,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치아홈메우기 등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각 학교에서 주 1회 잇솔질 후 불소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아를 단단하게 하고 세균의 활동을 방해하여 치아우식증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구강 관리를 위해 매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